

올 2300명 해외연수 추진

도교육청-지역교육지원청서... 미국·독일 등서 진로진학 탐방 등 풍성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올해 약 2300명 규모의 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본청과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해외연수는 미국과 독일, 중국, 필리핀 등 대상 국가가 다양한 뿐만 아니라 해외진로진학 탐방, 영어 문화권 체험, 역사 탐방 등 내용도 풍성하다.

이에 전북도교육청은 국제교류 수업과 연계해 국제교류 대상 국가로 떠나는

현장 체험학습을 준비하고 있다. 초·중·고 학생 600여 명이 8월부터 1~2주 일정으로 연수를 떠날 예정이다.

더불어 호주 등 영어권 국가를 대상으로 한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체험학습과, 중학생들이 참여하는 미국 NASA 글로벌 캠프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이밖에 글로벌 수학탐험대, 영어집중 프로그램, 어학연수 등 공부에 집중하는 연수, 장애학생과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 평화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식정보 기반 초연결사회,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기후환경 변화 등 초국가적 해결과제가 대두되면서 세계시민성 함양과 국제이해 교육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해외연수를 통해 학생들이 견문을 넓혀 글로벌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신임 감사관에 교육부 출신의 이홍열 감사관(사진 오른쪽)을 임용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서거석 교육감과 이홍열 신임 감사관이 임용증서를 들어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새 교과서 편찬준거 내일 나온다

지난해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될 검정교과서의 편찬 기준이 이를 뒤 나올 예정이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과서 검정 수탁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오는 27일 오후 1시30분 충북 진천에 위치한 평가원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검정 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 주제인 '검정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은 민간이 편찬한 교과서를 검정 당국인 교육부가 심사하기 위한 기준으로 '편찬준거'라고도 한다. 공급자마다 제각각인 교과서를 내놓으면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일정한 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설명회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교과서를 내고 싶은 발행사 관계자와 저자 등이 참석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편찬준거와 국어·역사 등 교과별 편찬준거에 대한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이때 정부가 편찬하는 초 1·2 국정 교과서를 제외한 모든 학년의 편찬준거가 공개될 계획이다.

앞래 편찬준거를 포함한 검정실시공고는 새 교과서가 쓰이기 1년6개월 전에만 이뤄지면 된다. 새 교과서 도입 시기는 2024년 초 1·2, 2025년 초 3·4 및 중·고 신입생 등으로 달라 검정 실시공고도 연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이번 검정실시공고는 한 번에 진행되는 것이다.

수학·과학 검정교과서 편찬준거는 또 다른 교과서 검정 수탁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별도의 설명회를 열어 공개할 계획이다.

최근 5·18 민주화 운동이 개정 교육과정에서 빠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반발이 일자 교육부가 교과서에는 관련 표현을 담겠다고 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1~2월 2개월 간 재학생과 졸업생을 위한 집중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과, skill-up 컴퓨터자격증반을 운영하고 있다. 25일 밝혔다.

전주대, 취업컨설팅 프로그램 내달까지 운영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센터장 이상행)는 1~2월 2개월 간 재학생과 졸업생을 위한 집중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과, skill-up 컴퓨터자격증반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집중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은 입시지원서 및 면접 특강, 전문 취업컨설턴트와의 1:1 맞춤형 상담과 소규모 그룹형 집중 교육으로 구성됐다.

이어 skill-up 컴퓨터자격증반은 컴퓨

터활용능력 1, 2급, GIQ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이 진행된다.

이상행 센터장은 “전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8년간 안정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과 기술을 겸비한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계속되는 고용 한파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 2023학년도 등록금 동결

“학부모·학생 부담 최소화”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가 2023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11년 연속 동결해 온 우석대는 지난 9일부터 학생·교직원·동문·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석대학교의 학기당 등록금은 현재

인문 288만원, 이학 343만원, 공학 394만원 등이다.

남천현 총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3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며 “재정지원사업 수주와 대학발전기금 모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학생 복지나 교육·연구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청렴한 전북교육 이어나가기 위해 최선”

도교육청, 이홍열 신임 감사관 임용... 교육부 출신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신임 감사관에 교육부 출신의 이홍열 감사관을 임용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공석인 감사관을 선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공개모집을 실시,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거쳐 이홍열 감사관을 임용했다.

감사관은 전북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조사 등 감사업무 전반에 대해 총괄한다.

한편 이홍열 신임 감사관은 정읍 호남고등학교와 전주대를 졸업한 뒤 원

광대에서 교육학 석사를 경기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수료했다.

2004년부터 2015년까지 교육부 감사관실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해 온 감사 분야 베테랑이다. 이후 2022년 7월부터 서울교육대학교 총무처 처장으로 근무했다.

이홍열 신임 감사관은 “고향인 전북에서 근무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구현하고, 청렴한 전북교육을 이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

고창특수교육지원센터

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

전북도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주)은 방학 중 교육에 소외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미래역량 신장과 더불어 일상생활능력 및 사회 적응능력 함양을 유도하기 위하여 겨울방학 프로그램인 ‘속속과학캠프’를 27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관내 초·중·고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참여하는 이번 ‘속속과학캠프’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자체 프로그램과 함께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대학생 교육기부를 활용하여 운영의 질을 더욱 높이고 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푸드아트 테라피 영화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운영되는 찾아가는 대학생 교육기부는 나눔 소통 배움, 도전, 재미, 치유 라는 6가지 공유가치가 담긴 다양한 창의·인성 프로그램으로써 바다정원 꾸미기, 팽팡볼 로켓 만들기, 코끼리 공기청정기 만들기, 열변색 물감으로 그림그리기 등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통합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도교육청, 감사담당공무원 맞춤형 교육

오늘부터 이틀간 직무감찰 사례·공직범죄 유형 등이 주 내용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6~27일 도교육청 창조나래(별관) 시청각실에서 2023년 감사담당공무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체감사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통한 감사 품질을 향상시키고 감사 전문성 확립으로 인한 감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교육은 본청 및 교육지원청 감사담당공무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계약 및 회계감사 사례 △직무감찰 사례 △확인서·질문서·문답서 작성 방법 △감사 민원처리 요령 △공직범죄의 주요 유형 및 사례 등이다.

노경숙 사무관은 “감사담당공무원들의 감사역량을 강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실현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연수를 통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감사담당공무원들이 효율적인 감사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